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홈플러스 회생절차 한숨 돌려

〈MBK파트너스〉

김 회장 비롯 4인 구속영장 기각
“檢, 회사 정상화 위한 노력 오해”

불구속 상태, 회생절차 속도 기여
최고 결정권자 신변 자유로워야
향후 M&A 과정 등서 신속 결정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법조계는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하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게 내려진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기업회생 신청을 숨긴 채 1164억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 규모의 단기채권(ABSTB)을 발행하고 1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고의성 입증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영장이 기각되자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

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

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김병주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책임은 기각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구속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제 범죄 특성상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법원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수희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구속의 핵심 요건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인데, CEO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의 경우 신변 확보가 어렵지 않고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아 구속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액 1조원이 넘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에도 구영배 전 쿠팡 대표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리스크의 정점이었던 오톨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홈플러스가 추진 중

인 구조혁신형 회생 절차는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홈플러스는 최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회장의 불구속 상태가 회생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주요 경영진이 구속되고 그 사유가 회계 장부 조작으로 인정됐다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며 “이 경우 본 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 우려가 있었기에, 회생 절차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장 기각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수희 변호사 역시 “회생 절차는 법원의 주도로 진행되기에 구속 여부와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최고 결정권자의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회생 계획안이 실행되어야 향후 M&A 등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롯데마트, 초저가 피자·핫도그로 물가부담 ↓ 오뚜기, 인천공항 라운지에 대표라면 공급

고물가에 초저가 델리상품 라인업 강화
6800원 피자, 1500원 핫도그 선보
오늘부터 전 점포서 한정수량 판매

롯데마트는 고물가로 인한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15일부터 전 점에서 ‘68피자’와 ‘15핫도그’를 출시하고 초저가 델리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68피자’는 한 판에 6800원, ‘15핫도그’는 개당 1500원이라는 과격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롯데마트는 매일 오후 12시와 5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점포별로 피자 25~50판, 핫도그 60~100개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68피자’는 불고기와 페퍼로니 2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산 밀로 만든 도우에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넣어 풍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요리하다 68페퍼로니피자. /롯데마트

미를 살렸다. ‘15핫도그’ 역시 국내산 돈육 함량 95% 이상의 고품질 소시지를 사용해 맛과 식감을 모두 잡았다.

롯데마트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재료 대량 매입과 조리 공정 단순화 전략을 택했다. 피자는 냉동 상태로 입고해 매장에서 굽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했고, 핫도그 재료 역시 손질된 상태로 조달해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요리하다 15핫도그. /롯데마트

온·오프라인 주문 데이터를 활용해 폐기율을 최소화했다.

롯데마트·슈퍼 이체현 델리개발팀 상품기획자는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성비 델리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웰푸드 딸기 디저트 11종 선보

롯데웰푸드가 봄 시즌을 맞아 딸기를 활용한 한정판 디저트 11종을 선보인다. 올해 콘셉트는 딸기와 다양한 맛을 조합한 ‘스트로베리와 친구를 소개합니다(스친소)’로, 기존 딸기맛에 우유·요거트·크림치즈는 물론 피스타치오·초코·바나나 등 이색적인 조합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건과 제품은 빼빼로, 카스타드, 찰떡파이, 말랑카우 등 7종으로 구성됐으며, 빙과는 ‘구구’ 브랜드를 통해 딸기&크림 치즈 조합의 콘·바 제품 3종을 출시한다. 베이커리로는 딸기크림과 국내산 꿀을 더한 ‘미니샌드 딸기&꿀’을 선보인다.

출시를 기념해 ‘스친소 초성 완성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품 패키지의 ‘스친소’ 초성을 활용한 콘텐츠를 SNS에 업로드하면 응모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태국 명품 산지서 들여온 망고 맛보세요”

신세계백화점, 해외 확장 첫사례
최상의 맛 위해 엄격한 품질기준 적용

신세계백화점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업계 최초로 해외 지정 산지에서 들여온 프리미엄 망고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망고 세트는 신세계백화점의 자체 지정 산지 브랜드인 ‘셀렉트팜(Select Farm)’을 해외로 확장한 첫 사례다. 신세계는 태국 최대 망고 산지인 차츄사오(Chachoengsao) 지역의 전문 농장과 손잡고 재배부터 수확, 선별, 물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했다. 단순 수입을 넘어 현지 농가와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품질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는 최상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했다. 당도와 향이 가장 뛰어난 ‘후숙도 85%’ 구간의 상품만을 선별했으며, 현지에서부터 국내 입고 시점까지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쿨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국내 도착 후에도 청과바이어가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고객이 상품을 받는 설 명절 기간에 맞춰 최적의 후숙 상태가 되도록 조절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태국 망고로만 구성된 ‘신세계 태국망고 세트(6입, 7만5000원)’와 국내산 사과·배를 함께 담은 ‘신세계 사과·배·태국망고 세트(9입, 11만 원)’ 등 2종을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 최원준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명절 선물의 품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오뚜기, 인천공항 라운지에 대표라면 공급

대한항공 라운지 리뉴얼 맞춰
‘라면 라이브러리’ 첫 도입

오뚜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 리뉴얼 오픈에 맞춰, 라운지 내 새롭게 조성된 ‘라면 라이브러리(Ramyun Library)’에 자사 대표 라면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이번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 리뉴얼과 함께 처음 도입된 공간으로, 기존 일부 컵라면 위주의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봉지면을 즉석 조리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라면 서비스다. 대한항공은 K-푸드와 라면의 글로벌 인기를 반영해 공항 라운지 내 식품(F&B) 콘텐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공간을 새롭게 마련

했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53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위치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 내에 조성됐다.

오뚜기는 해당 공간에 자사 대표 라면 14종(진라면 외)을 공급한다. 이용객은 다양한 라면 메뉴 중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즉석 조리 기기를 통해 직접 조리한 라면을 라운지 내에서 즐길 수 있다.

오뚜기는 라운지 신규 오픈에 맞춰 라면 라이브러리에 참여함으로써 공항 라운지라는 글로벌 이용 환경에서 자사 라면을 K-푸드 콘텐츠로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출국 전 대기 시간이라는 이용 특성에 맞춰 간편하면서도 친숙한 메뉴를 통해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천공항 최대규모 푸드코트 ‘고메브릿지’

CJ프레시웨이, T2 동편점 열어

CJ프레시웨이가 인천국제공항 내 최대 규모 푸드코트인 ‘고메브릿지’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동편점을 14일 신규 오픈하며 총 4개 점포 약 1500석 규모의 고메브릿지 라인업을 완성했다.

고메브릿지 T2 동편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푸드코트 중 최대 면적인 1730.23㎡(약 523평)의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CJ프레시웨이는 앞서 오픈한 3개 점포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T2 동편점에 모두 녹여냈다. 입점 코너는 다양한 국적의 이용객이 찾는 인천국제공항 특성을 고려해 한식부터 중식, 캐주얼푸드, 아시안식 등으로 폭넓게 구성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에서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14일 오픈한 인천국제공항 고메브릿지 T2 동편점 홀 모습. /신원선 기자

‘2025 인천공항 맛있는 메뉴’ 대상으로 선정한 ▲자연담은한상(불고기 비빔밥)이 대표 메뉴로 꼽힌다. ▲육수고집(돼지고기 김치찌개) 등 앞서 오픈한 점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고메브릿지 대표 코너들도 모두 입점했다.

고메브릿지 T2 동편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팔도지짐이(서울식 고기완자전), ▲저스트핫도그(미트칠리 핫도그) 등 신규 코너를 선보인 것도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